



## 하느님 알아가기, 하느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최승정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교리신학원 원장

유다 전통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느님 체험은 이집트 탈출입니다. 하느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하셨는지에 대해 유다 전통은 끊임없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은 그 사건을 이끌게 될 모세가 하느님과 처음으로 조우하는 장면인데, 바로 오늘 첫째 독서의 대목입니다.

양 떼를 몰고 호렙으로 간 모세는 신비로운 광경을 목격하고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알게 된 하느님은 모세를 백성들에게 보내려고 하는데, 정작 모세는 몹시 난처해합니다. 왜냐하면 모세 자신을 포함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느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400년간 종살이를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느님을 잊게 된 것일까요? 창세기에서 하느님은 아브라함-이사악-야곱에게 나타나셨지만, 그들에게 자신을 명확하게 알려주시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탈출기에는 여러 번에 걸쳐 하느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탈출기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창세기의 성조들보다 하느님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된 것입니다.

구약성경은 이스라엘이 하느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신학적 갈등과 긴장을 여과 없이 독자들에게 보여줍니다. 독자들은 이제 자신들의 현재에서 성경이 전해주는 신앙과 신학을 바탕으로 “하느

님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스스로 대답해야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탈출과 해방의 역사를 바오로는 코린토 1서에서 그리스도론에 바탕하여 재해석합니다. 바오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영적 바위에서 솟는 물을 마셨고, 그 바위가 곧 그리스도이셨다고 해석합니다(신학에서는 이와 같은 해석을 예형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바오로는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음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 역시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위한 하나의 본보기(예형)였다고 바오로는 해석합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영성체를 했다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을 통해 전례적 상징이 완성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오로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코린토 공동체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 깊은 깨달음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천천히 하느님을 알아왔듯이, 이제 막 생겨난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하느님 백성들도 천천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아갑니다.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성장하면서 우리는 가끔 질문하곤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과연 올바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일까?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맺는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루고 있는 교회 공동체라는 열매... 그 열매는 하느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열매이겠지요?!



### 문정2동성당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27길 34

문정2동성당은 1999년 9월 가락동성당에서 올림픽훼밀리아파트 단지 내 신자 2,970명을 분리해 설립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입한 상가 건물에 임시 성전을 만들어 1년간 지내다가 성전 신축 공사를 시작함에 따라 다시 문정동성당 지하 주차장을 임시 성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후 1년 6개월 만에 준공하여 2002년 6월, 지하 2층과 지상 5층 성전 축복식을 거행했습니다. 신축 후 10년간 유지해 온 성당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2층은 기도 및 회합 공간인 ‘파스카홀’을, 1층은 친교의 방인 ‘아가페를, 지하 1층은 대형 회합 공간인 ‘호산나홀’을 설치하였습니다.

김명중 시몬 신부 | 문화홍보국 차장

대치4동성당 문정2동성당 방화3동성당

